

2016 년 5 월 1 일(주일) 야고보서(19) “영적 손실의 원인을 제거하세요”(약 5:1-6)

<도입>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개인과 공동체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성화(성숙)로의 돌파구를 찾는가 라는 문제에 주력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성화의 필요에 대한 동기와 초점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은 4 장의 문맥에 이어 성화를 방해하는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며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1] 4 장 문맥에서 비추는 본문의 포인트

야고보는 성도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사랑을 향하여 끊임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바르게 반응하고 합당하게 행하면(그리하면), 아버지께서는 더욱 당신의 하늘의 보고를 열어 영적인 부요와 종말에 관한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영적 원리를 잘 터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의 신앙 뿐 아니라 ‘그리하면’의 신앙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야고보서 강해 15 참고).

오늘 본문은 4 장의 문맥을 살피면 야고보의 point 를 좀 더 포괄적이고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4:8)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습관이나, 태도와 방향성, 또한 성숙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꾼은 11-12 절 ‘비판(판단)하는 것’입니다. 비판(판단)한다는 것은 일상에 뿌리깊은 삶의 방식이고 습관입니다. 자신이 입법자요 사법자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13-17 절을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보이며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탄한 이득과 자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관한 경고이죠. 1 절에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라고 지칭했다고 해서 오늘 날에도 부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들이 돈과 신앙에 관하여 어떤 자세와 방식을 가졌는가를 보면, 재산이 적어도 똑 같은 방식을 취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영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장에서 지적한 모든 잘못된 방식의 삶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기쁨에 반대로 가는 반 하나님적 속성(죄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2] 야고보 공동체가 입은 손실

앞서 2 장에서 본 야고보 공동체의 아픈 현실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과 관련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일부 비도덕적 사업가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영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이토록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재정적 안정의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라는 욕심은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인간 중심적 방식의 삶으로 번지게 함을 시사합니다. 비판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마디 더’ 하려는 습성과 욕구가 자기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종류의 영적 손실을 가져올까요?

(1)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의식을 공통으로 가지고 함께 협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됨의 축복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조금만 더라는 삶에는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치게 마련이고, 언젠가는 상대가 부족해 보이든지, 지독해 보이든지 실망하여 서로의 간극을 더 넓혀갈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축복으로 넘치는 나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발원이 되어서 모든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들 간의 관계, 백성들과 자연의 관계 등으로 관계가 생명인 나라입니다. 모든 관계가 좋아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관계가 빈약하면 생명이 끊긴 것과 같습니다.

(2) 의인을 죽이게 됩니다. 양과 숫자에 관한 목표 의식에 쫓길 때 결국 의인을 정죄하고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동참하지 않는 자, 자기만 고상하게 생각하는 자, 도움이 안 되는 자... 등으로 뒤집어 씩읍니다. 6 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언급한 인간중심적 방식을 가진 자들은 옳은 자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 없는 자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은 아벨이 이 세상에 없어도 될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죽였던 것과 같습니다.

<맺음>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 피양육자, 낯선 자들을 돌보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입니다. 또한 영적 손실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충실하게 가는 성도는 관계의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누리며, 의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한마디 더'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해질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고 모두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잘못된 방식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2. 이런 방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3. 야고보는 이런 삶을 극복하고 성화되고, 유업의 축복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까?
4. 내 삶을 돌아볼 때, '조금만 더' '한마디만 더'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